

절대고난의 현장에서 절대승리의 망대를 세운 파수꾼 읊 -복음으로 여는 읊기- 읍기 1:1-5, 로마서 3:23-24

정운돈 목사님

* **읍:1-5** 우스 땅에 읊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오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읊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읊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읊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 **롬: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땀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현장과 육신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이 뭘까? 아무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한다. 끝났으니까 토론도 하지 말고 기분 나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은 모든 과정을 겪지만 모든 결과가 감사, 기쁨,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면계약으로 감동하고 설레는 게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문제 앞에서 어떤 길, 어떤 답, 어떤 뜻인지 고민해야 하지만 감사한다는 건 다른 말이다. 문제를 꼭 잡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 회의나 토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주장에 기분 나빠하지만 아니다. 읊기도 보면 열 띄게 토론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철학과 전문성이 나온다. 읊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읊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것도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간믿음, 고급믿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특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흑암을 꺾고 이길 수 있다. 내 수준을 기준 삼으면 그게 다 사탄의 통로가 된다. 과정들이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다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계획이 보이면 기다려라. 문 열릴 때 움직여라. 시간이면 조금씩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라.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해라.

중요한 건 Heavenly Talent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복 받고 구원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게 율법주의이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성경적 기준이 아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 미워하면 살인,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했다.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은 ‘의인인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은 남의 죄를 가지고 탓하거나 책려보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가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기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게 여러분에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 사탄이 여러분을 읊처럼 고난을 받게 해도 괜찮은 그게 사탄을 꺾는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읊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웃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다. 구원과 사탄과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행위의 조건이 아니고 신분의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전할 때 착하나 아니하는 중요하지 않다. 신분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걸 정죄하면 여러분이 심판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혼이 잘됨같이 읊처럼 결국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된다는 건 복음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참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조금만 기도하면 다 길이 있다.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그때 속으면 안 된다. 지나면 다 해결되어있다.

오늘은 읊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읊은 우스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보다 조금 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읊이 살았던 ‘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북동부의 ‘바산’이나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라는 말도 있고, ‘아라비아사막 북부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아라비아사막 북부지역을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다. 그러나 읊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고난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1. 읊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여러분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읊을 생각해라.

(1) 어느 날 모든 종들과 재산을 잃어버렸다. 읊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살아남은 3명의 종들이 차례대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사환이 읊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2) 이어서 같은 날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읊기 1장 5절에 보면 읊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허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한 순간에 불러가셨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녀가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있어도 죽으면 의미 없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그치고 할 필요 없다. 기다리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면 된다. 읊은 열 명의 자식이 동시에 죽었다. 분명 굉장한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예배하고 서밋타임을 가졌는데 죽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그 기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수준의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3) 옴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 옴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옴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옴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4)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옴의 부인도 옴의 믿음을 비난하였다. 옴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다. 옴의 부인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5)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이 옴을 도덕적, 율법적으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정죄하였다. 세 친구들은 멀리서 와 옴을 위해 칠 일을 울었다. 훌륭한 친구들이다. 그러나 옴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옴의 세 친구들은 옴을 믿어주지 않고 정죄하고 꾸짖었다. 이런 옴은 심리적인 고통까지 당하였다. 옴은 더 이상 심하게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이다. 세 친구들이 정죄한 관점을 보자. ① 엘리바스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옴을 비난하였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인과응보를 떠올린다. 엘리바스는 회개하고 말을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② 빌닷은 법적 관점에서 옴을 꾸짖는다. ‘빌닷’의 이름 뜻이 ‘논리적 분쟁’이다. 무엇인가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주장이다. ③ 소발은 종교적 관점에서 회개를 촉구한다. 종교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 비난을 받지 않지만 무당이나 산신령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는다. 새벽부터 목욕재계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주일성수를 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옴은 자신이 그렇지 않으며 의롭다고 변호한다. ④ 엘리후는 젊은 친구인데, 세 사람을 꾸짖는다.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윤리, 도덕적이냐는 것이다. 옴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고 복음으로 때리는 장면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났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오직 예수라는 것이다. 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굴복한다. 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옴과 엘리후를 꾸짖으신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미래의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많다. 그걸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신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순교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했다. 때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감사했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2.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옴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1)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건강과 자녀를 잃어도 뛰어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천국에 가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초월하라는 것이다. 옴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옴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옴은 모든 것을 잃고도 오히려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사실은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과 마귀에게도 합격하고 세상에서도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도 다 괜찮은 사람을 사람들도 좋아한다.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주께 맡겨야 한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유 있는 괜찮음이다.

(2)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1순위로 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나 부인이나 애인이나 친구나 재산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친구들을 인생의 제1목표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나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성격을 1순위로 두고 살아도 안 된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문제다. 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를 점검해라. 여러분의 기준과 이익이 1순위 되면 안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기도와 예배와 교회를 삶의 1순위로 두어야 한다. 이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다.

(3) 또한 옴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완벽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고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게 옴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4) 옴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옴기가 선교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옴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있다. 그런 사람을 찾든지, 제자로 양육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절대목표다. 우리는 제3세계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볼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옴기의 핵심목적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옴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진정으로 죄 없이 억울하게 오해와 비난 속에서 정죄 받고 고난을 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지금과 미래와 영원토록 승리하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떠올라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한다. 성경은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고 한다. 고난 왔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다. 말씀 없이 괜찮다고 하면 정신병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항상 기도한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나 자신과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셨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하나. 나의 기준과 짜증과 이익으로, 성격으로 자꾸 정죄하면 복음과 자꾸 멀어진다. 참된 전도와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예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예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믿음의 망대를 세운 옴과 같은 파수꾼이 되어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옴과 같은 믿음의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옴 이상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